

무대의상을 위한 18세기 복식의 현대적 제작방법(제1보)

- Habit à la Française를 중심으로 -

최 지 은* · 윤 선 미** · 윤 보 연*** · 배 수 정⁺
전남대학교 의류학과 박사과정* · 전남대학교 의류학과 박사과정*
전남대학교 의류학과 박사과정*** · 전남대학교 의류학과 조교수⁺

18th Century Costume Making for Korean Theatre I

- Focused on the habit à la française -

Ji-Eun Choe * · Sun-Mi Yun** · Bo-Yeun Yun*** · Soo-Jeong Bae⁺
Doctoral Course, Dept. of Clothing & Textile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Doctoral Course, Dept. of Clothing & Textile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Doctoral Course, Dept. of Clothing & Textile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2004. 3. 29 투고)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make it easy to reproduce the pattern and sewing technique of men's coat in 18th century, which are modified in order to be made readily available in Korean theatre costume. The investigation was performed in three steps. 1st: The papers and records about development and change of men's coats were reviewed. 2nd: The whole process of the way how to make a typical 18th century men's coats were sewn. 3rd: The modification or revision into the more simplified pattern using by CAD system and sewing technique were suggested in detail.

The size of the pattern in the original one, which we chose for this research, was generally small, with the side line being moved back a little. Moreover, arm movements were severely restricted because of the small arm-hole. The problems of original pattern were corrected by making both front and back pattern snug and side line being moved to the front, and making arm-hole wider.

In the sewing technique, the simple way how to use of padding, inter-linings and linings and to create the most noticeable figure of 18th century men's coat. This article may help theatre costume production in Korean performing art.

Key words : coat(코트), waist coat(조끼), theatre costume(무대의상)

I. 서론

무대의상에서 시대적인 배경을 알려주는 요소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관객들에게 시각적으로 가장 잘 전달되는 것으로 무대의상을 들 수 있다. 무대의상은 공연예술의 다양한 시각적 요소들 중에서 배우 몸에 가장 밀접하게 접촉되는 것으로, 등장인물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수단이다. 최근 우리나라 공연예술계에서도 이전에 비해 무대의상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무대의상의 창작성과 적절함이 극의 성공요인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¹⁾.

최근 서양의 과거복식의 실물제작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한 실물제작에 국한되는 경향이 있어 왔다²⁾. 그러나 실물제작이란 이 복식들을 필요로 하는 곳에 적절히 사용하기 위한 실용적인 목적을 전제로 한다고 생각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고증에 의한 재현보다는 실제 무대의상에 적용 가능한 패턴과 봉제기법의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실무에서 사용 가능한 실제적이고 현대적인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현재 무대의상에 관한 연구는 국내의 경우 두 가지로 대별되는데 하나는 그 시대를 반영한 디자인을 중심으로 외형을 똑같이 복제하는 경우와, 다른 하나는 고증에 의해 과거의 패턴과 봉제방법을 그대로 복원하는 경우이다. 전자의 경우는 제작 시 그 시대의 패턴이나 봉제기법은 거의 고려하지 않고 현대화된 패턴을 사용하기 때문에 시대를 반영하는 고증복식의 특징들이 제대로 표현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후자는 서양복식의 고증에 치우쳐 정해진 인치에 의한 패턴을 사용함으로써 사이즈에 따른 변형이 어렵고 패턴제작 및 봉제기법 또한 복잡하고 수작업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현행 무대(오페라, 연극, 뮤지컬 등)에서 착용되고 있는 의상은 자체제작도 하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외국에서 대역해오는 것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³⁾.

국외의 연구는 Norah Waugh⁴⁾, Linda Baumgarten과 John Watson⁵⁾, Katherine Strand Holkeboer⁶⁾ 등에 의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Waugh의

연구는 17세기에서 19세기 사이의 남녀복식 중 현존하는 복식을 중심으로 패턴을 제시하고 있고, Baumgarten과 Watson의 연구는 버지니아주의 Colonial Williamsburg Foundation에 소장되어 있는 25벌의 시대복식을 그 패턴과 봉제방법에 있어서 자세히 기록해 놓은 것이다. Holkeboer의 연구는 이를 무대의상에 맞게 적절히 단순화시킨 것으로 어디까지나 서양인의 입장에서 서양인의 체형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어서 한국인의 체형에 맞추기 위해서는 별도의 연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서양복식의 고증을 통해 그 시대의 복식에 필요한 조형적인 요소들을 찾아내어 디자인을 제시하고 복잡한 패턴 및 제작방법을 현대적 감각에 맞게 단순화시키면서도 한국인의 체형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18세기 남자 코트 중 아비 아 라 프랑세즈(habit à la française) 대해 분석 및 고증하여 한국의 무대의상에 적용할 수 있는 패턴과 사이즈, 봉제기법 등을 제시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시대복식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연구의 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18세기 복식 중 남자 코트의 발생 및 변천에 대해 문헌을 통해 고찰한다.

둘째, 18세기 남자 코트 중 아비 아 라 프랑세즈(habit à la française)의 대표적인 디자인을 제시하고 제작과정은 실물자료를 근거로 코트의 패턴 및 봉제기법의 분석을 시도하며, 제작의 전 단계를 제시한다. 패턴 및 그에 따른 바느질법은 Norah Waugh의 『The Cut of Men's Clothes: 1600-1900』에 기초를 두었고, 소재는 그 시대의 특징적인 소재와 자수 문양을 응용하였다.

셋째, 고증에 의한 오리지널 패턴을 보다 간편화된 패턴으로 전환하고, 보다 현대적이고 편리한 봉제기법을 제시한다. 간편화된 패턴은 서구체형에 맞게 제작된 오리지널 패턴을 KS 남성복 코트의 표준 사이즈에 기초하여 패턴의 사이즈 변경을 시도하고, 이를 CAD system 중 PAD system을 이용하여 단위를 인치에서 센티미터로 전환하여 보다 편리하게 응용할 수 있도록 한다.

II. 코트(coat)의 변천

1. 코트의 기원

코트는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에 걸쳐 착용된 겹옷으로 그 기원을 캐색(cassock, casaques)에서 찾을 수 있다. 1630~50년대에 캐색은 남자들의 상의인 더블릿(doublet)과 하의인 브리치즈(breeches) 위에 걸쳐 입었던 케이프의 일종으로 추측되며, <그림 1>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케이프이지만 두 조각의 앞판과 뒤판으로 잘려져 있고, 두 조각의 소매를 가지고 있으며, 앞판과 뒤판이 코트처럼 단추로 채울 수 있었다⁷⁾.

이 시기에 더블릿은 그 형태가 서서히 변하고 있었는데, 더블릿은 허리에서 절개되어 여러 조각의 페플럼(peplum)으로 장식되고, 점차 페플럼의 길이가 길어짐으로써 전체 길이가 길어졌다. 1660년경이 되어서는 소매와 허리선이 짧아지면서 불레로와 같은 형태를 띠게 되었다⁸⁾. 이러한 형태는 <그림 2>의 루이 14세의 복장에서 분명하게 보여지는데, 이러한 더블릿을 "jackanapes"라고 하였으며 이 명칭은 1668년까지 사용되었다⁹⁾. 이 타피스트리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1669년까지 더블릿과 코트가 공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왼쪽에서 두 번째에 보이는 직선적인 코트는 당시 새로운 모드(mode)로 더블릿과는 상당히 다른 형태를 띠고 있으며 코트가 일반화되기 전 초기 10년 동안 캐색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직선적인 실루엣에 무릎까지 내려오는 길이로 더블릿 위에 입었다¹⁰⁾<그림 3>. 그러나 1670년경 보온이라는 실용적인 목적을 충족시킬 수 없었던¹¹⁾ 더블릿이 점차 사라지면서 실용적인 코트가 상의를 대신하였다. 이것은 현재까지 확인된 자료에 의하면 1670년 이후의 어떠한 회화나 조각, 타피스트리에도 더블릿의 형태가 보이지 않으며 또한 "더블릿"이라는 단어 자체도 1670년 이후 모두 사라진 것에서 알 수 있다¹²⁾. 이 시기 초기와 함께 생겨난 코트는 프랑스어로 쥐스토포르(justaucorps)라 하였다¹³⁾.

일반적으로 코트 안에는 웨이스트 코트(waist coat)를 입었는데, 이러한 착장은 꼬따르디(coteh-

ardie) 안에 푸르프앵(pourpoint)을 착용하였던 14세기, 그리고 저킨(jerkin)과 더블릿을 한 벌로 입었던 16세기의 유행을 재현한 것이다¹⁴⁾. 이것은 이전의 더블릿이 속옷으로 변한 것으로¹⁵⁾, <그림 4>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웨이스트 코트의 초기 형태는 목에서 허리까지 단추가 달려 있고, 코트와 같은 둥근 목둘레에 엉덩이 정도의 길이였으며, 코트 보다 조금 더 긴소매를 가지고 있었다.

1680년경에는 코트의 소매 길이가 더욱 길어짐에 따라 커프스의 크기도 비례하여 커졌고, 포켓이 등장하여 코트의 상당히



<그림 1> Broadcloth suit, 1635, (François Boucher, A History of Costume in the West, p. 270)



<그림 2> Meeting of Louis XIV and Philip II, Detail from Gobelins Tapestry, 1669. (Blanche Payne, History of Costume, p. 366)

아래쪽에 위치하게 되었다. 중반 이후 코트의 실루엣은 상당히 변화되었는데 허리는 점차 가늘어지고 스커트의 플레어 분량이 많아졌다¹⁶⁾. 이는 스커트의 햄 라인에 주름을 형성하게 하였고, 1690년대에는 스커트 단에 캔버스천의 안감을 받쳐¹⁷⁾ 우아한 곡선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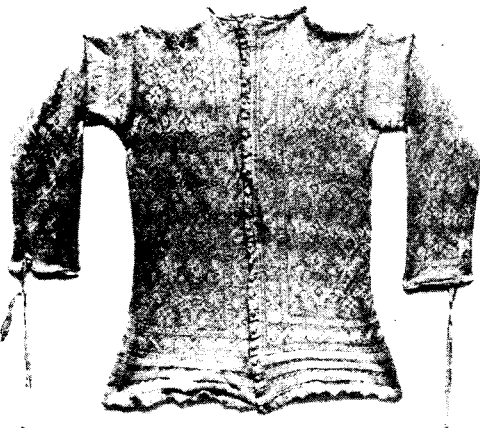


<그림 3> Costume of King Fredrick III of Denmark, 1655, Copenhagen, Rosenborg Palace. (Blanche Payne History of costume, p. 345)

만들어내었다. 또한 코트와 웨이스트 코트의 포켓에 플랩이 보여지기 시작했으며, 코트의 주름 분량은 상당히 증가되었다. 소매는 손목으로 갈수록 점차 넓어졌고, 접혀진 커프스의 넓이도 커졌다<그림 5>. 웨이스트 코트는 코트의 소매가 길어짐에 따라 점차 소매가 없어졌고, 길이는 코트보다 약간 짧았으며 앞중심 전체를 단추로 장식하였다.

17세기 말이 될수록 코트는 사치스러워졌는데, 금·은사 자수와 브로케이드로 화려하게

장식을 했으며 커프스 또한 정교하게 수를 놓았다. 또한 앞여밈에는 단추를 촘촘히 달거나 몰(mole)¹⁸⁾과 금·은사로 만든 끈으로 장식하였다. 이와 같은 장식적인 코트는 처음에는 귀족들만 입었으나 나중에는 하류계층에서도 착용되었다¹⁹⁾.



<그림 4> Man's waist coat, First half seventeenth century, Collection Lord Middleton. (François Boucher, A History of Costume in the West, p. 276)

이처럼 캐석에서 유래된 코트는 17세기 후반(1670년 무렵)에 더블릿과 대체되었으며, 웨이스트 코트와 함께 착용되어 더욱 화려해지고 보편화되면서 18세기 대표적인 남자복식이 되었다.

2. 18세기 코트의 특징

18세기 프랑스를 포함한 서구유럽의 남자복식은 크게 변하지 않았으나 후기로 갈수록 실루엣이

점차 단순해지고, 장식이 줄어들었다. 기본적으로 코트, 웨이스트 코트, 무릎 길이의 브리치즈의 쓰리피스로 구성되어 이들의 조합을 아비(habit) 또는 슈트(suit)라 하였고 모든 계층에서 입었는데, 신분이나 시대에 따라 그 형태와 장식을 달리 하였다²⁰⁾.

본 연구에서는 18세기의 코트 중 아비 아 라 프랑세즈(habit à la française)를 분석함에 있어 1760년대를 기점으로 초·중반기 그리고 후반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 시기는 코트의 앞 중심선이 직선에서 사선의 형태로 바뀌면서 스커트 부분의 풍성함이 줄어들드는 뚜렷한 실루엣의 변화가 시작된 시기이며 또한 이러한 변화는 착용 시 움직임을 편하게 하는 실용적인 기능을 갖기 때문에 복식의 형식적인 면과 내용적인 면에서 모두 변화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1) 18세기 초·중반기(1700~1750년대)

18세기 초 남자 코트의 기본적인 형태는 17세기의 코트와 별다른 차이점을 보이지 않았다²¹⁾. 이 시기의 코트는 무릎 길이이고 허리 아래로 스커트 부분이 플레어진 형태로, 스커트 양옆에는 트임이 있고



<그림 5> Coat worn by Fredrick IV, 1695, Copenhagen, Rosenborg Castle. (François Boucher, A History of Costume in the West, p. 281)

이 부분에 주름을 넣어 풍성하게 하였으며, 뒤 중심에도 일직선의 트임과 주름이 있었다. 코트와 웨이스트 코트의 스커트 부분을 뺀치게 하기 위해 고래수염, 말총, 아마포로 얇게 패딩을 하여 그 풍성함은 18세기 중엽 정점에 이르렀고 <그림 6> 이후 1760년대를 지나면서 볼륨은 점차 감소하였다²²⁾.

코트의 앞판에는 목 중심에서부터 햄 라인까지 단추가 달려 있었는데, 코트의 등장 초기에는 단추를 채워 입었던 것이 차츰 앞을 열어 입거나 허리에서 한 두 개만의 단추만 채워 허리는 잘록하게 되고 밑단으로 갈수록 풍성한 형태가 되었다.

초반기의 코트에는 1760년 무렵 좁은 스탠딩 칼라(standing collar)가 달리기 전까지 칼라가 없었으며, 팔꿈치 길이의 소매에는 넓은 커프스(cuffs)가 달렸고, 소매끝으로 shirt의 러플(ruffle)이 보였다. 포켓(pocket)은 허리선 아래에 낮게 달렸던 것이 1720년 이후 허리선 부근까지 올라오고 포켓 플랩의 폭은 점차 좁아지게 되었다²³⁾.

코트 안에는 웨이스트 코트를 입었는데, 웨이스트 코트의 기본스타일은 겉옷과 거의 비슷하였으며, 코트보다 2~3 인치 짧은 길이였다. 전기에는 소매가 달린 것도 있었으나 1760년대 이후 소매가 없어졌다²⁴⁾. 코트와 웨이스트 코트의 전면에는 금, 은, 견사로 화려하게 자수를 놓거나 브레이드(braid)로 장식하였다. 1730년경 코트, 웨이스트 코트와 함께 장판지까지 오는 긴 양말 위로 브리치즈의 단추를 잠궈 입었다²⁵⁾.

2) 18세기 후반(1760년대~18세기 말)

18세기 중엽이후 남자복식에 있어서 고전적인 취향을 버리고 기능성과 직선적 취향을 추구하는 새로운 모드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²⁶⁾. 코트의 일반적인 외형은 18세기 전반기와 비슷하나 네크라인과 커프스, 그리고 스커트의 부피가 달라졌다. 따라서 1760년부터 코트와 웨이스트 코트의 재단에도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거의 직선이던 앞중심선이 폭선으로 휘어지기 시작하면서 옆선이 뒤쪽으로 이동함에 따라 옆선의 주름이 사라지고 뒷폭이 좁아진 패턴으로 변화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스커트의 풍성함이 감소된 직선적인 형태의 패턴이 되었다.

1760년대에 네크라인(neckline)이 높고 좁아졌으며 좁은 스탠딩 밴드칼라나 플랫 칼라가 사용되었다. 실루엣이 전반적으로 슬림해짐에 따라 소매통은 좁아졌으나 길이는 더 길어졌고, 넓은 커프스 역시 좁아지게 되었다. 1770년대에는 스커트 부분의 뒤쪽에 주름을 잡지 않고 옆 솔기선이 좀 더 뒤쪽으로 옮겨졌다. 후기로 갈수록 커프스는 점차 사라지게 되어 폭이 좁은 커프스가 달리거나 커프스를 달지 않게 되었는데 커프스가 없는 것에는 소매 끝에 수를 놓거나 브레이드 장식과 단추를 달았다²⁷⁾ <그림 7>.

1766~7년경 프랑스에서는 사치스런 의상의 유행에 대한 반동으로 소박하고 실용적인 프락(frac)이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frock은 1720년대 영국에서 입었던 프록 코트(frock coat)와 같은 의상으로, 직선적이고 기능적인 스타일로써 원래 노동자 계층에서 주로 착용되었다. 프락은 싱글 여밈, 턴다운 칼라, 작은 커프스의 슬림한 실루엣의 코트로써²⁸⁾ 심을 많이 넣지 않아서 가볍고 착용감이 좋아 프랑스에서는 평상복 혹은 승마나 여행 시 착용하였다 <그림 8>. 프락과 함께 영국에서 전래된 코트로 르탱고트(redingote)가 있다²⁹⁾. 르탱고트는 1780년대에 중요한 의상품목이 되었는데, 춤거나 비올 때 그리고 특히 말을 탈 때 입었으며 나중에는 평상복으로 입게



<그림 6> frock coat, 1760-1770 (Karen Baclawski, The Guide to Historic Costume, p. 113)



<그림 7> suit of King Christian VI, 1743 (Blanche Payne, The History of Costume, p. 396)



<그림 8> habit à la française (정홍숙, 서양복식문화사, p. 257)

되었다³⁰⁾. 르몽고트는 더블 여밈, 큼직한 칼라와 라펠이 특징인 코트로, 1780년대에는 이러한 더블 여밈과 여러 겹의 칼라, 큰 라펠의 코트를 입는 것이 유행의 선두에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프랑스혁명 후 남자 복식 중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코트의 볼륨이 줄어들어 아주 빈약하게 보이는 것으로, 코트의 앞자락 끝이 무릎 뒤쪽까지 사선으로 재단되어 바지가 거의 다 드러나게 되었다. 1790년대에는 커다란 라펠이 생겨나고 허리선 아래의 앞자락을 잘라 낸 것 같은 현대의 테일 코트(tail coat)

와 비슷한 모양이 되었다. 테일 코트는 크게 두 가지의 형태였는데, 즉 오늘날의 테일러드 스타일에서처럼 앞쪽을 평행하게 일직선으로 재단한 타입과 현재의 모닝 수트(morning suit)처럼 앞면을 비스듬히 재단한 것이다.³¹⁾ 소매는 꼭 끼며 커프스가 없어지거나 그 크기가 줄어들었다.

또한 18세기 후반의 큰 변화는 웨이스트 코트의 길이가 매우 짧아져 허리선의 위치에 까지 올라가게 되었으며 이 시기에 소매가 완전히 없어졌다. 뒷판은 보통의 평범한 재질로 만들어졌던 반면 앞판은 화려한 자수로 장식되었다(이는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와 함께 긴 양말과 브리치즈는 계속 착용되었으며, 코트 앞자락 선의 변형에 의해 브리치즈가 밖으로 많이 드러나게 되자 그것이 몸에 잘 맞는가가 관심을 끌게 되었다. 이 시기 브리치즈는 허벅지 아래의 다리를 잘 감싸는 형태로 무릎 위의 트임은 단추를 달아 여미었으며 무릎 밴드(band)는 버클(buckle)로 여몄다³²⁾.

Ⅲ. 코트의 오리지널(original)

제작법

1. 패턴 분석

1) 디자인

18세기 후반기 남자 코트의 고증을 위해 <그림 7>에 제시된 코트를 선정하였다. 이 코트는 1780년대 프랑스에서 착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앤 벅(Anne Buck)의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 이러한 자수장식의 코트는 매우 전형적인 공식복이었다고 한다³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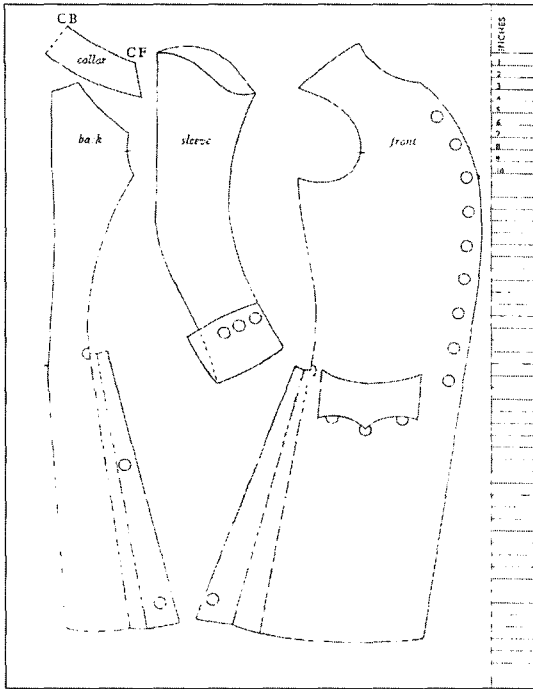
칼라는 높은 스탠딩 칼라이며, 스커트 부분의 뒤쪽에는 주름이 잡혀 있지 않고 옆 솔기선이 뒤쪽으로 많이 옮겨져 있다. 소매통이 좁으며 커프스 또한 손목에 거의 맞는 형태이다. 소재는 18세기에 주로 사용되었던 두꺼운 실크가 사용되었고, 코트의 앞판과 뒷판, 칼라, 플랩에 새틴 스티치로 정교하게 자수가 장식되어 있다. 단추는 자수가 놓인 옷감으로 만든 싸개단추이며 앞중심과 포켓의 플랩에 장식되었다. 이 경우 단추구멍은 거의 뚫리지 않고 형태만 장식되었으므로 단추 역시 장식이 목적³⁴⁾이었다고 할 수 있으며, 안감 역시 실크 소재였다.

2) 패턴

코트 패턴은 『The Cut of Men's Clothes』에서 <그림 7>의 코트와 거의 유사한 패턴을 골라 사용하였다. 코트의 오리지널 패턴은 <그림 9>와 같고 이 패턴의 실측 사이즈는 <표 1>과 같다. <표 1>의 실측 사이즈는 여유분을 포함한 사이즈이고 인치와 센티미터를 병기하였다.

<표 1> 오리지널 패턴의 실측 사이즈

종류	실측사이즈	비고
가슴둘레	41인치(104cm)	여유분 포함
허리둘레	30인치(76cm)	여유분 포함
코트길이	44½인치(112.5cm)	뒷목점~코트아랫단
등길이	18¼인치(46.2cm)	뒷목점~허리둘레선
앞진동둘레	13인치(33cm)	
뒷진동둘레	3½인치(8.7cm)	
소매산	4인치(10cm)	약 A.H/4 정도
소매길이	27인치(68.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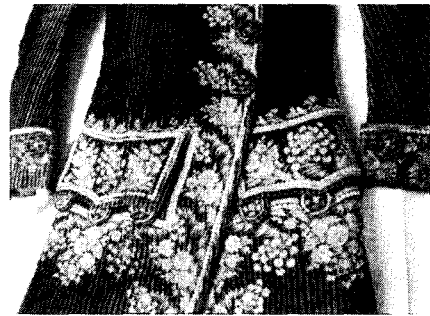
<그림 9> 오리지널 패턴 (Norah Waugh, The Cut of Men's Clothes, p. 75) □ 1인치

3) 몸판 잇기

심이 부착된 각각의 몸판 패넬을 연결한 후, 가름 솔로 처리한다. 이때 심이 완성선 밖으로 나가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잘라내 주어야 솔기가 투박해지지 않는다. 칼라도 같은 방법으로 심을 붙인 후 솔기를 처리한다.

4) 칼라 붙이기

안감과 겉감의 칼라를 각각의 몸판에 붙인다.



<그림 10> 포켓 플랩 붙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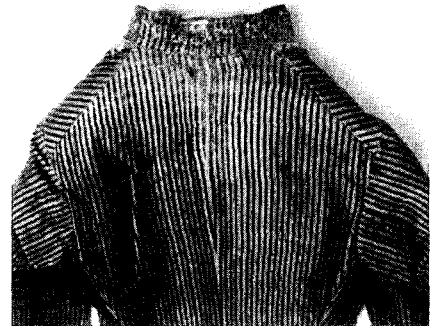
2. 봉제과정 분석

1) 심(芯) 붙이기

앞판, 뒷판, 칼라의 각각 패넬에 심을 부착시키는데, 완성선의 약간 안쪽에 팔자뜨기로 고정시킨다. 이때 심의 크기는 완성선 보다 커서는 안되고 앞판, 뒷판, 칼라 모두에 전체적으로 사용한다. 모두 고정시킨 후에는 완성선에 맞게 심의 솔기를 잘라낸다. 이는 솔기가 너무 두껍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2) 포켓 플랩 붙이기

포켓 플랩에 심을 붙인 후 <그림 10> 에 제시된 것처럼 정한 위치에 붙인다. 이때 플랩의 안쪽에 실제 포켓을 만들기도 하는데 무대의상이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만들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배우의 요청이나 연기 상 필요한 경우에는 실제 포켓을 만들기도 한다.



<그림 11> 몸판 붙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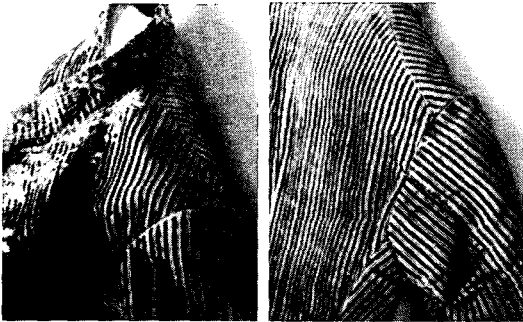
5) 소매 만들기

소매를 안감과 겉감을 만든다. 소매 솔기선을 봉제한 후 커프스를 만들어 부착시킨다. 이때 소매의 진동돌레에 소매 중심을 반드시 표시해 두어야 소매가 제 위치에 부착될 수 있다.

6) 소매와 몸판 붙이기

소매와 몸판을 연결하는데, 소매의 솔기선이 몸판

의 어깨선에서 뒷쪽으로 4.5cm 이동한 지점(소매 중심)에 맞추어 봉제한다. 이는 실수하기 쉬운 부분으로, 이동하지 않고 소매를 달면 소매가 뒤로 넘어가는 현상이 일어난다. <그림 12, 13>



<그림 12> 소매 붙이기<앞> <그림 13> 소매붙이기<뒤>

7) 안감 잇기

안감의 몸판, 소매를 겹감과 같은 방법으로 잇는다.

8) 안감과 겹감의 시접 꺾어 다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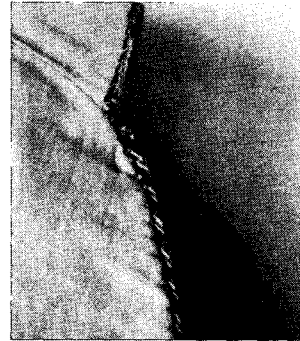
겹감은 완성선을 따라 꺾어 다림질하고, 안감은 완성선에서 0.5cm 안쪽으로 들어가 꺾어 다린다.<그림 14>

9) 안감과 겹감 잇기

안감과 겹감의 뒷 중심선을 맞추어 고정시킨다. 뒷 중심쪽에서 밖으로 쓸어내리면서 각 중심점을 맞춘 후 안감쪽의 끝에서 공그르기 한다. 특히 칼라부분의 시접은 아래로 향하도록 놓고 몸판의 안감을 꺾어 공그르기를 한다.<그림 15>



<그림 14> 안감잇기



<그림 15> 칼라부분잇기

10) 최종 마무리

심을 고정시켰던 팔자실표를 뜯고, 단추를 달고 단추구멍(실제 구멍을 내지는 않음)을 장식하여 마무리한다.

11) 단추달기

자수 처리하여 단추를 만들어 단다.

오리지널 코트는 <그림 16>이며, 이를 재현한 코트는 <그림 17>과 같다.



<그림 16> 오리지널 코트



<그림 17> 재현된 코트

<표 2> KS 남성복 코트 표준 사이즈

항목	사이즈(cm)
가슴둘레	97
허리둘레	82
신장	175

* KS 남성복 코트의 기본 신체부위는 가슴둘레, 허리둘레, 신장으로 하며, 가슴둘레와 허리둘레는 3cm 간격, 신장은 5cm 간격으로 가감한다.

1) 앞길 패턴

- (1) 목둘레에 여유분을 주기 위해 목둘레선을 오리지널 패턴 보다 약간 여유있게 주었다. (앞목점 1.1cm ↓, 옆목점 (0.6cm →, 0.6cm ↓)
- (2) 옆선이 뒷길쪽으로 치우쳐 있어 옆선을 앞중심쪽으로 이동하였다. (옆허리선 3.8cm →, 앞중심 3.8cm →)
- (3) 소매둘레에 여유분을 주기 위해 진동을 약간 파주었다. (7.4cm ↓)
- (4) 앞중심 사선의 경사를 완만하게 조정하였다. (5cm →, 1.8cm ↓)
- (5) 앞품에 여유분을 주기 위해 앞중심선을 밖으로 이동하였다. (1.8cm →)
- (6) 재킷 길이와 포켓 크기는 오리지널 패턴의 사이즈를 그대로 적용하였다.

IV. 코트의 간편 제작법

1. 패턴과정의 분석

18세기에는 여성스러운 남성, 즉 연약한 남성이 사랑을 받았다. 이에 남성들은 다이어트를 하여 일부러 체중을 줄이기도 하였으며, 고래뼈를 넣은 콜셋을 착용하였다³⁵⁾. 따라서 당시의 패턴을 현대에 그대로 적용시키기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현대 무대의 상에 맞추어 패턴을 변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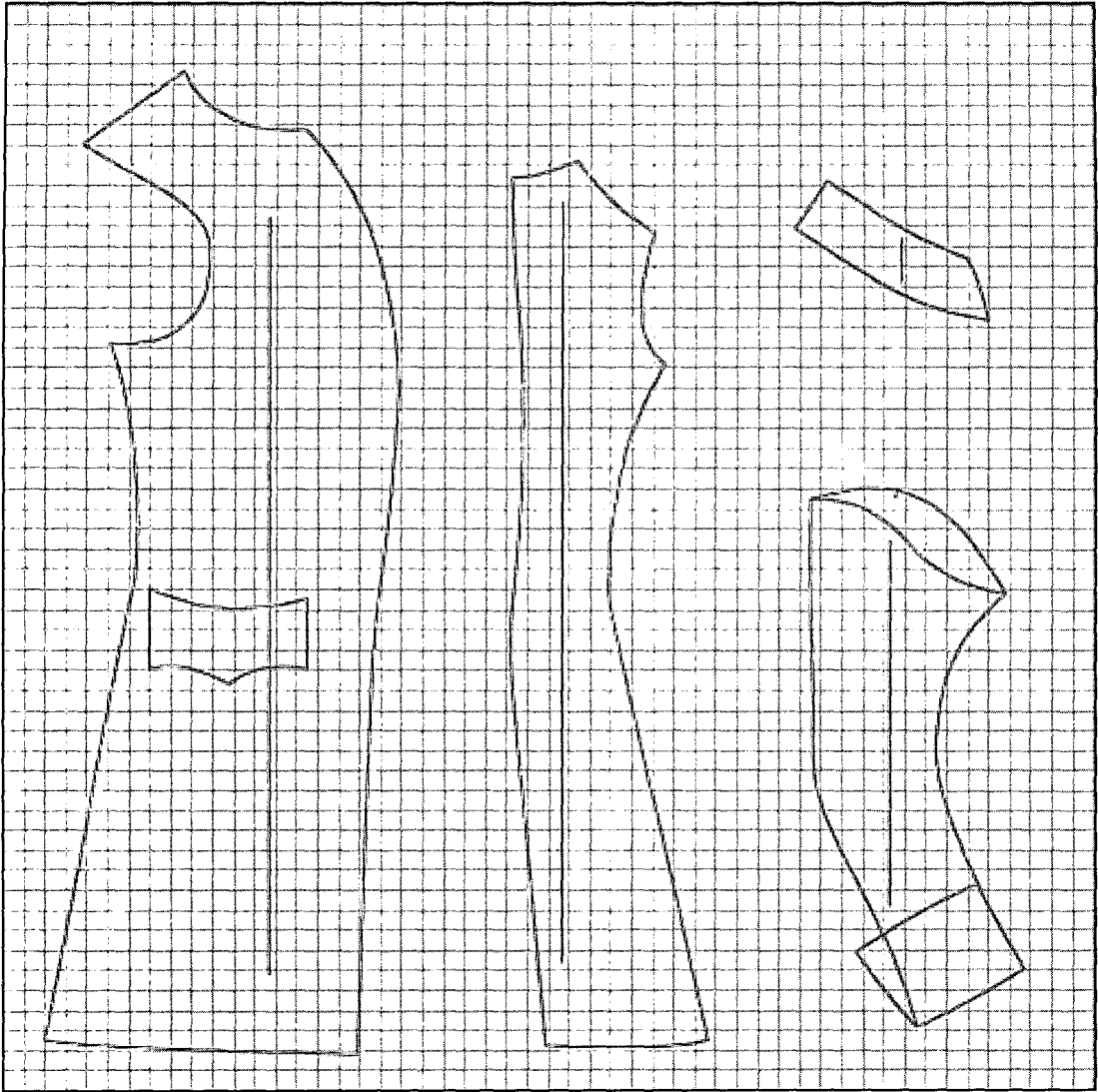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패턴의 사이즈를 우리나라 남성복 브랜드³⁶⁾에서 표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이즈를 적용하였으며, 이 사이즈는 KS 남성복 코트의 사이즈에 의해 가감하여 사용할 수 있다. KS 남성복 코트의 표준 사이즈는 <표 2>와 같다.

2) 뒷길 패턴

- (1) 목둘레에 여유분을 주기 위해 목둘레선을 약간 여유있게 파주었다. (뒷중심목점 1.3 cm ↓, 1.3cm ←, 옆목점 1.3cm ↓, 0.6cm →)
- (2) 뒤품에 여유분을 주기 위해 뒤중심선을 약간 밖으로 이동하였다. (1.3cm ←)
- (3) 어깨선은 앞패턴과 같게 조정하였다. (0.9cm →)
- (4) 옆선이 뒷길 쪽으로 치우쳐 있어 옆선을 앞길 쪽으로 이동하였다. (2.5cm ←)

3) 소매 및 칼라

- (1) 앞·뒷길의 진동둘레가 커짐에 따라 소매산의 높이와 진동둘레를 조정하였다.



□ 2.5cm × 2.5cm

<그림 18> 수정된 패턴

<표 3> 수정된 패턴의 실측 사이즈

종류	실측사이즈	비 고
가슴둘레	101.5cm(40inch)	여유분 포함
허리둘레	83.0cm(32 $\frac{2}{3}$ inch)	여유분 포함
코트길이	112.5cm(44 $\frac{1}{2}$ inch)	뒷목점~코트아랫단
등길이	45.7cm(18inch)	뒷목점~허리둘레선
앞진동둘레	40.7cm(16inch)	
뒷진동둘레	17.4cm(6 $\frac{7}{8}$ inch)	
소매산	13.7cm(5 $\frac{3}{8}$ inch)	
소매길이	68.5cm(27inch)	

(2) 앞·뒷길의 목둘레가 커짐에 따라 칼라의 목둘레를 오리지널 패턴 보다 크게 조정하였다. 수정된 패턴의 사이즈를 실측하면 <표 3>과 같다.

2. 봉제과정 분석

간편 제작법의 봉제과정은 오리지널 제작법의 순서에 의하여 제작하며, 편리하게 응용 가능한 몇 가

지 방법만을 제시하고자 한다.

오리지널 제작법에서는 팔자뜨기로 심을 고정하였으나, 두꺼운 집착심지를 이용하면 시침을 하지 않고서도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소매의 경우는 정확한 어깨선의 위치와 소매의 중심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봉제 시 주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소매재단 시 소매의 중심을 정확히 너치(notch)로 표시해 두어야 하며 봉제 시 패턴 상 어깨선의 위치에서 앞중심쪽으로 약 5~7cm정도 이동한 위치에서 봉제하여야 한다.

겉감과 안감을 붙이는 경우 오리지널 제작법에서는 다림질로 시침을 접은 다음 손으로 안쪽의 겉감에서 공그르기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간편 제작법에서는 현대의 코트 봉제법처럼 겉감과 안감의 겉을 맞추어 놓고 완성선을 따라 봉제한 후 뒤집음으로써 형태 면에서는 같은 효과를 주면서 빠르고 쉽게 처리할 수 있다.

V. 오리지널 제작법과 간편 제작법의 비교

앞의 3장과 4장을 통해 분석된 18세기 남자 코트의 오리지널 제작법과 간편 제작법을 자세히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 패턴의 비교분석

오리지널 패턴과 수정된 패턴을 비교한 결과 수정된 패턴의 주요 사이즈가 오리지널 패턴 보다 커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허리둘레는 7.2cm(2 $\frac{3}{4}$ inch) 커졌으며, 진동둘레는 15.9cm(6 $\frac{3}{8}$ inch), 소매산은 13.7cm(5 $\frac{3}{8}$ inch)가 늘었다. 반면 가슴둘레는 2.5cm(1inch)가 줄었으며, 등길이는 0.6cm($\frac{1}{4}$ inch)줄었다. 이러한 사이즈의 변화는 동양인과 서양인의 체형차이도 있겠지만, 그 보다 각 시대의 표준 신체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18세기 인체의 이상형은 호리호리한 체격에 가는 허리로, 이는 이성에게 매력적으로 보여졌으며, 이를 위해 남성들도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콜셋을 착용하

였다.³⁷⁾ 이로 인해 남성들은 최대한 마른 체격을 유지하고자 하였으며, 더 나아가 콜셋을 착용함으로써 의복의 사이즈가 작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오리지널 패턴과 수정된 패턴을 비교해 놓은 것은 <표 4>와 같다.

2. 봉제과정의 비교분석

봉제과정에 있어서는 과정의 단순화와 현대화에 주안점을 두었다. 오리지널 제작법에서 사용된 비접착 심지를 간편 제작법에서는 집착 심지로 대체하여 제작의 용이함과 의복의 형태를 안정화시켰다. 또한 안감과 겉감 붙이기 과정에 있어서 오리지널 제작법에서는 겉감과 안감을 각각 다림질한 후 손바느질로 공그르기 하였으나, 간편 제작법에서는 겉감과 안감을 같이 박음질 후 뒤집어 다림질함으로써 복잡한 봉제과정을 간편화하였다. <표 4>는 오리지널 패턴과 수정된 패턴을 비교하여 정리한 것이고 <표 5>는 봉제방법을 비교한 것이다.

VI. 결론

무대의상은 극 내용에 대한 정보 전달의 가장 중요한 매체로 극의 주제나 분위기, 인물의 성격 등을 나타낸다. 특히 시대복식은 당대에 구입 가능한 소재, 당대인들의 기술적인 능력, 그 사회의 관습이나 규범 등을 말해 줌으로써 그 시대와 사회의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게 만든다. 이러한 시대복식의 제작에 있어서 복식사에 대한 연구는 특정한 시대를 바로 아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므로 복식사의 이론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한 무대의상의 고증 및 복원, 더 나아가 디자인에 대한 연구는 중요한 과제라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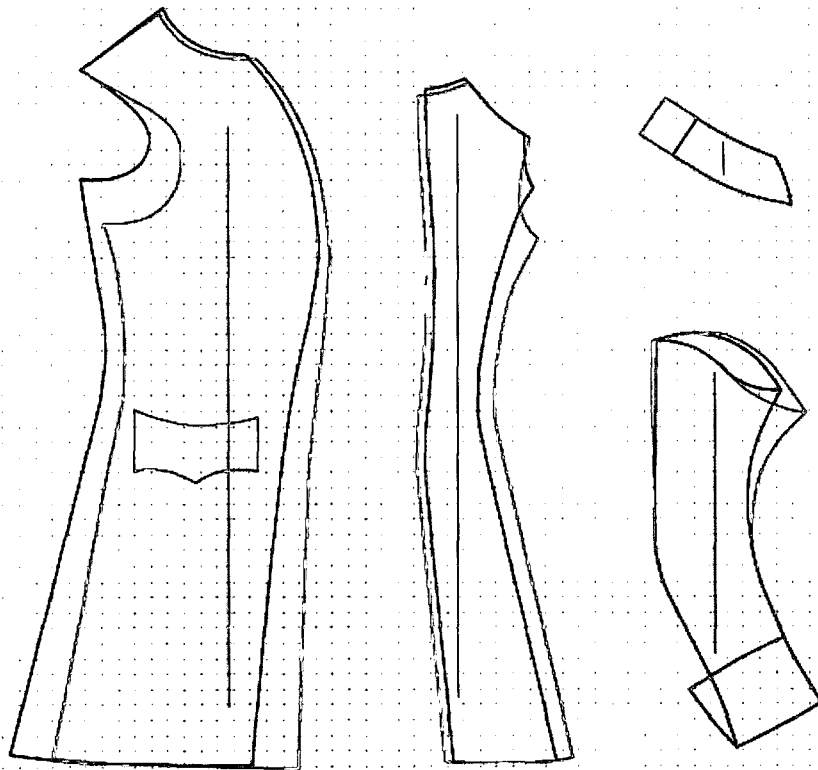
본 논문에서는 현존하는 18세기 남자복식 중 가장 전형적인 코트를 선정하여 그 패턴과 제작방법을 분석하여 한국의 무대 및 배우에 적절한 현대적인 패턴과 봉제방법을 제시하였다. 한국인의 체형에 잘 맞는 패턴을 제시하기 위해 사이즈는 KS 남성복 코트의 표준 사이즈를 패턴에 적용하였고, 봉제방법은 손

<표 4> 오리지널 패턴과 수정된 패턴의 비교

	항 목	오리지널 제작법	간편 제작법	비 교
실측 사이즈	가슴둘레	104cm(41inch)	101.5cm(40inch)	-2.5cm(-1inch)
	허리둘레	76.0cm(30inch)	83.0cm(32 $\frac{3}{4}$ inch)	7.0cm(2 $\frac{3}{4}$ inch)
	코트길이	112.5cm(44 $\frac{1}{2}$ inch)	112.5cm(44 $\frac{1}{2}$ inch)	0
	등길이	46.2cm(18 $\frac{1}{2}$ inch)	45.7cm(18inch)	-0.5cm(- $\frac{1}{4}$ inch)
	진동둘레	41.7cm(16 $\frac{3}{4}$ inch)	58.1cm(22 $\frac{7}{8}$ inch)	16.4cm(+6 $\frac{3}{8}$ inch)
	소매산	10cm(4inch)	13.7cm(5 $\frac{3}{8}$ inch)	3.7cm(1 $\frac{3}{8}$ inch)
	소매길이	68.5cm(27inch)	68.5cm(27inch)	0

분 석 가슴둘레는 거의 차이가 없으나 허리둘레는 오리지널 패턴이 너무 적어 약 7.2cm정도를 늘려주어야 한다. 특히 뒷판의 폭이 너무 적어 전체적으로 치수를 늘려주었다. 암홀의 차이가 많이 나며, 오리지널 패턴의 앞중심선이 뒤로 많이 휘어져 있어 앞중심을 약간 앞으로 옮겨주었다.

패 턴



— 오리지널 패턴
 - - - - - 간편화된 패턴
 □ 2.5cm×2.5cm

<표 5> 봉제기법의 비교

오리지널 제작법	간편제작법
<p style="text-align: center;">① 심(芯) 붙이기</p> <p>각각의 패널에 개성을 팔자뜨기로 고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① 접착심지 붙이기</p> <p>각각의 패널에 접착심지를 고정한다.</p>
↓	↓
<p style="text-align: center;">② 포켓 붙이기</p> <p>포켓의 플랩을 정한 위치에 고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② 포켓 붙이기</p> <p>포켓의 플랩을 정한 위치에 고정한다.</p>
↓	↓
<p style="text-align: center;">③ 몸판 잇기</p> <p>각각의 패널을 어깨솔기, 옆솔기를 바느질 한 후 시접이 잘 꺾여질 수 있도록 개성을 바느질선에 가깝게 잘라낸다.</p>	<p style="text-align: center;">③ 몸판 잇기</p> <p>각각의 패널을 바느질 한 후 다림질 한다.</p>
↓	↓
<p style="text-align: center;">④ 칼라 붙이기</p> <p>안감, 걸감을 각각 칼라를 만들어 붙인다.</p>	<p style="text-align: center;">④ 소매 만들기</p> <p>소매 옆솔기를 봉제한 후 커프스를 고정한다.</p>
↓	↓
<p style="text-align: center;">⑤ 소매 만들기</p> <p>소매옆솔기를 봉제한 후 커프스를 고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⑤ 소매와 몸판 붙이기</p> <p>어깨중심선이 뒷길쪽으로 치우쳐 있으므로 소매중심과 몸판의 어깨선에서 앞길쪽으로 4.5cm 이동한 지점에 맞추어 바느질한다.</p>
↓	↓
<p style="text-align: center;">⑥ 소매와 몸판 붙이기</p> <p>소매가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소매중심을 정한 후 봉제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⑥ 안감 잇기</p> <p>안감의 몸판, 소매를 바느질한다. 단 소매를 붙이는 방법은 걸감과 동일하다.</p>
↓	↓
<p style="text-align: center;">⑦ 안감 잇기</p> <p>안감의 몸판, 소매를 바느질한다. 단 소매를 붙이는 방법은 걸감과 동일하다.</p>	<p style="text-align: center;">⑦ 안감과 걸감 붙이기</p> <p>걸감과 안감을 박음질 한 후 뒤집어서 다림질한다.</p>
↓	↓
<p style="text-align: center;">⑧ 안감과 걸감의 시접 꺾어 다리기</p> <p>걸감은 완성선을 따라 꺾어 다림질하고 안감은 완성선에서 0.5cm 안쪽으로 들어가 꺾어 다린다.</p>	<p style="text-align: center;">⑧ 칼라 만들어 붙이기</p> <p>칼라를 만든 후 몸판과 바느질 한 후 안쪽에서 공그르기로 마무리 한다.</p>
↓	↓
<p style="text-align: center;">⑨ 안감과 걸감 붙이기</p> <p>공그르기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⑨ 단추 달기</p> <p>자수로 된 단추를 단다.</p>
↓	
<p style="text-align: center;">⑩ 최종 마무리 및 단추달기</p> <p>개성을 고정시켰던 팔자실표를 뜯고 단추를 단다.</p>	

바느질 등을 사용하지 않고 봉제과정을 단순화시킨 현실적인 대안을 제안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오리지널 제작법에서의 패턴은 전체적으로 치수가 작았는데 뒷길의 경우 폭이 너무 좁아서 옆선이 뒤로 치우쳐 있고, 진동둘레가 너무 적어 활동이 매우 불편

하였다. 이는 당시의 패턴에서 보여지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당대 사람들의 체형이 마르고 신장이 작았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앞·뒷중심에서 약 2cm정도의 여유분을 주었으며, 옆선의 경우 앞중심 방향으로 약 2.5cm 이동하였다. 칼라와 소매의 경우 오리지널 제작법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앞·뒷길에서 수정된 사이즈만큼 크게 조정하였다.

또한 봉제 과정의 경우 오리지널 제작법에서의 복잡한 과정을 보다 쉽게 응용할 수 있도록 편리한 몇 가지 방법-심을 붙이는 방법, 걸감과 안감을 붙이는 방법, 소매 중심선이 진동둘레에 놓이는 봉제 위치를 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의 결과는 시대복식에 있어서 한국의 체형에 맞게 수정된 코트의 패턴과 간편한 봉제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 국내 무대의상의 자체 제작에 현실적인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 앞으로의 연구는 표준 사이즈를 적용한 패턴의 수정뿐만 아니라 그레이딩 룰값을 개발하여 다양한 사이즈로의 적용이 가능한 패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참고문헌

- 신경섭 (2000). 오페라<황진이>의 무대의상 디자인 연구. 패션비즈니스, 4(2), p. 128.
- 김문숙 외5명 (1996). 실물 제작을 통한 의상 연구. 복식, 28. 김문숙 외18명 (1994). 실물 제작을 통한 의상 연구 (II). 복식, 29.
- 설도윤 (2002, 5). 薛度胤(설도윤)의 야생마 같은 삶. 월간조선
- Norah, Waugh (1994). *The cut of Men's clothes 1600-1900*. London: Clays Ltd, p. 75.
- Linda, Baumgarten, & John, Watson (1999). *Costume close-up: Clothing construction and pattern 1750-1790*. Costume & Fashion Press
- Katherine, Strand Holkeboer (1984). *Patterns for theatrical costumes*. Prentice-Hall.
- Norah, Waugh. *op. cit.*, p. 16.
- François, Boucher (1966). *A history of costume in the west*. N.Y.: Thames and Hudson, p. 258.
- Iris, Brooke (1972). *A history of english costume*. London: Eyre Methuen, p. 79.
- C. Willett & Phillis, Cunnington (1970). *Handbook of english costume in the 17th century*. London: Faber, p. 133.
- Norah, Waugh. *op. cit.*, p. 345.
- Blanche, Payne (1965). *History of costume*. N.Y.: Harper & Row, pp. 345-348.
- 신상옥 (1998). 서양복식사. 서울: 수학사. p. 193.
- Blanche, Payne. *op. cit.*, p. 345.
- François, Boucher. *op. cit.*, p. 258.
- Blanche, Payne. *op. cit.*, p. 345.
- 정홍숙 (1998). 서양복식문화사. 서울: 교문사, p. 219.
- 주로 스코틀랜드에서 나는 대단히 부드러운 회색 모피
- 신상옥 (1998). 앞 책, p. 221.
- François, Boucher. *op. cit.*, p. 308.
- Millia, Davenport (1976). *The book of costume*. N.Y.: Crown Publishers, p. 652.
- Avril, hart, & Susan, North (1998). *Fashion in detail*. N.Y.: Rizzoli, p. 45.
- 신상옥 (1998). 앞의 책, p. 223.
- 신상옥 (1998). 앞의 책, p. 223.
- 막스 폰 빈, 천미수 역 (1998). 패션의 역사. 서울: 한길아트, pp. 80-82.
- 정홍숙 (1998). 앞의 책, p. 258.
- Blanche, Payne. *op. cit.*, p. 450.
- Karen, Baclawski (1995). *The guide to historic costume*. London: B.T. Batsford Ltd, p. 73.
- Blanche, Payne, & Geitel, Winakor, & Jane, Farrell-Beck (1992). *The history of costume*. N.Y.: Harper Collins, p. 402.
- François, Boucher. *op. cit.*, pp. 308-311.
- Karen, Baclawski. *op. cit.*, p. 73.
- Blanche, Payne. *op. cit.*, p. 444.
- Natalie, Rothstein (1984). *Four hundred years of fashion*. London: Victoria & Albert Museum, pp. 56-58.
- Avril, hart, & Susan, North (1998). *Fashion in detail*. N.Y.: Rizzoli Rublications International Inc. p. 45.
- 青木英夫 (1991). 下着の流行史. 京都: 雄山閣, p. 49.
- 제일모직, 코오롱, LG패션 등
- 김주애 (2000). 서양 남성 속옷의 변천에 관한 고찰. 한국미류학회지, 24(3), p. 356.